

일자리 마른 광주·전남... 73% 수도권 쏠림

<1.8%> <0.8%>

취업포털 '잡코리아' 작년 기업 채용공고 650만건 분석

광주·전남 전국 최하위...은행·보험·카드 분야 많아 지방 비중 26%에 불과...부산 5.4%, 대구 3.2% 순

국내 한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 신규 채용공고된 일자리의 41% 정도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8%, 0.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력을 찾는 기업들의 공고를 통해 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업체의 수가 그만큼 적다는 분석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자사 사

터에 등록된 기업들의 신규 채용공고수 650만9703건을 근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일자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로 전체 채용공고수의 4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지역이 24.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았고, 인천 7.7%, 부산 5.4%, 대구 3.2%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0.4%), 강원(0.5%) 지역이었다. 광주는 11만7043건(1.8%), 전남은 5만4501건(0.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방의 일자리 수 비중은 26.4%에 불과했다.

각 지역별 채용공고수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무 지역에 따라 모집하는 업종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은행, 보험, 카드분야 일자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 가장 활발했다. 전남은 은행, 보험, 카드(28.3%)와 콜센터, 시설관리(17.5%) 업종의 채용 비중이 컸다.

관광지가 많은 제주, 강원 지역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었던 업종은 호텔, 여행, 항공업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호텔, 여행, 항공업 분야의 채용공고비중이 전체의 18.7%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분야

식음료,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였다.

강원지역의 경우는 호텔, 여행, 항공업 분야가 10.5%로 1위를 차지했고 식음료, 외식, 프랜차이즈(10.0%) 등의 순이었다.

이 외 울산지역은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의 일자리 수 비중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경북지역 역시도 이 분야의 채용공고 비중이 각각 26.5%, 20.1%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백화점, 유통, 도소매 분야가 24.7%로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콜센터, 시설관리(17.9%), 네트워크, 통신서비스(15.7%) 분야 채용공고 비중이 높았다. 서울지역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업(17.6%)과 식음료,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의 일자리가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2월, 1월말보다 0.03%P ↑

2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치)을 보면 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70%로 1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2월 들어 새로 발생한 연체금(1조8000억원)이 이 기간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1조3000억원)를 웃돈 영향이다.

다만 작년 2월 말과 비교해서는 0.07%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2012년 3분기말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98%로 1월 말보다 0.16%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월 말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9%포인트로 한달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농협전남본부 영농철 농기계 순회 수리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농가의 농기계수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농자재종합서비스 운동' 발대식을 하고 청산농협 순회 봉사를 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광주 효천지구 LH 뉴스테이 615가구 건설

전국 4곳 3044 가구 공급...5월 26일까지 사업자 공모

광주시 남구 효천지구, 경기도 화성과 시흥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3044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찾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27일 "광주시 효천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봉담2지구, 시흥 장원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LH가 보유한 뉴스테이용 택지에 대한 올해 첫 사업자 공모다.

28일 이러한 공모가 공고되며 사업계획서 접수는 5월 26일까지다. 이후 평가를

거쳐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효천지구에는 A-2블록 2만8515㎡에 전용면적 60㎡ 이하 뉴스테이 615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동탄2신도시에는 A-92블록 4만5614㎡에 전용면적 60~85㎡ 뉴스테이(아파트)가 774가구가 건설된다. 토지가격은 953억원이다.

봉담2지구는 B-3블록 6만2천5㎡에 전용면적 60~85㎡ 뉴스테이 1004가구가 지어진다. 토지가격은 961억원이다. 토지가격이 736억원인 장원지구 B-6블록 3만

9758㎡에는 전용면적 60~85㎡ 뉴스테이 651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등은 효천지구 뉴스테이 단지화 동탄2신도시를 각각 '신혼부부 특화'와 '헬스케어 특화'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은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가운데 '단지특화서비스' 배점을 2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보험사의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용도 평가에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도 추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18 26 33 34 38	1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50,214,830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0,283,746	66
3 5개 숫자일치	1,343,471	1,979
4 4개 숫자일치	50,000	95,436
5 3개 숫자일치	5,000	1,558,885

작년 벼농사 순익 10% 줄었다

생산비 4.1%P 감소 불구하고 수입 더 크게 떨어져

지난해 쌀(논벼) 생산비가 줄었지만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쌀농사 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5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69만1869원으로 전년보다 2만9610원(4.1%) 감소했다. 쌀 생산비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 10a당 생산비는 2011년(62만8255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kg당 쌀 생산비는 2만4666원으로 전년보다 2195원(8.2%) 감소했다.

20kg당 쌀 생산비는 2011년 2만9189

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으로 줄었다. 그러나 쌀농사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10a당 총수입은 99만3903원으로 전년보다 6만4188원(6.1%) 감소했다. 이는 쌀 판매단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산지 쌀값 20kg 가격은 2014년 4만2300원에서 지난해 3만9500원으로 떨어졌다. 생산비보다 총수입이 떨어지는 폭이 더 커 10a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3만4578원(10.3%) 감소한 30만2034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10a당 소득도 56만966원으로 전년보다 5만4250원(8.8%) 줄었다.

연합뉴스

가계 소득으로 빚갚기 갈수록 힘들어진다

작년 부채, 처분가능소득 1.5배...작년보다 7.8%P 늘어

국내 가계가 버는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837조1767억원) 대비 가계신용 연발 잔액(1206조9798억원)은 144.2%로 집계됐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임금이나 예금 이자 등으로 마련한 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대표적인 가계부채 통계다.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모어도 가계부채를 전부 갚기 어렵고 가계 빚의 44%가 남는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2004년 100.8%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1년 131.3%로 130%대에 올라섰고 2012년 133.1%, 2013년 133.

9%, 2014년 136.4%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상승곡선이 가파르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작년 말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7.8%포인트나 뛰었다.

이 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통계를 편제한 2002년 이후 최대였던 2006년(7.2%)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소득과 대비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2014년보다 5.2%(41조4478억원)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 잔액은 11.2%(121조7206억원) 급증했다.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었던 것이다.

가계 부채 급증은 작년 6월 기준금리가 연 1.50%까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연합뉴스

1인당 국민총소득 2.6%↓...6년만에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000 달러대로 떨어졌다. 이로써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은 또다시 무산됐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340달러(3093만5000원)로 전년(2만8071달러)보다 2.6%(731달러) 줄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감소하기는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1인당 GNI는 2006년 2만823달러로 2

만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9년 동안 3만달러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만8303달러로 떨어졌고 2010년 2만2170달러, 2011년 2만4302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2013년 2만6179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뒷걸음질 한 것이다.

그러나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는 2014년 2956만5000원에서 4.6%(137만 원) 늘었다.

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7.4%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연합뉴스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색은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들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스틸단열방수 전문기업
연합건설
광주·전남지사

現)BLVD HOTEL 서울 영등포 로터리 신축 호텔

매매 교환

15층 81실
임대완료(성업중)
보증금 10억, 월세 7500만원

- 시행사 직접매매
- 매매가 165억원(조정가)
- 교환가능(토지, 건물 등)
- 직영가능

담당자 : 조송정 상무 010-7624-8822

경인리츠